

# 순천시 낙안읍성 주민 안전교육 및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허석 순천시장, 정재숙 문화재청장 참관

사적 302호...초가집 밀집해 화재에 취약

순천시는 문화재청 주관으로 낙안읍성 주민 안전 교육 및 국가안전대진단을 최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허석 순천시장,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참관하여 주

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낙안읍성은 사적 제302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300여 채의 초가집이 밀집해 있어 화재에 취약한 구조로 되어있어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중요한 곳이다. 이번엔 시행한 주민 안전 교육은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 전기·가스의 사고 사례와 사용법 등을 연극 형식으로 주민이 알기쉽게 구성했다. 또 119 낙안지역대의 협조를 받아 문화재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시설점검과 화재진압, 인명대피 훈련 등 소방활동 훈련을 실시하고 방재설비 사용법을 시연하기도 했

다. 이날 교육행사에 참석한 허석 시장과 정재숙 청장은 주민간담회를 갖고, 순천시가 건의한 '낙안읍성 ICT기반 스마트 빌리지 구축사업'과 '읍성 내 지중전력 간선 정비사업' 등에 대해 문화재청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보성군, 노동면사무소 33년 만에 새 단장

안전진단 낮은 등급 받아  
신축 결정...지상 2층 규모  
(구)노동초 부지에 건립



보성군 노동면사무소가 33년 만에 신축사로 이전을 마쳤다. 노동면사무소는 (구)노동 초등학교 부지에 건립되었으며, 13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했다.

안전진단에서 낮은 등급을 받아 신축이 결정되었으며, 2019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7월

작공, 2020년 6월에 준공했다. 건축물은 연면적 990㎡,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다.

보성=김덕순 기자

## 순천시 도심도로 제한속도 하향 조정

순천시는 도심지역 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조정한다. 도심부 안전속도 5030 정책이 2021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한속도 하향 조정 안내 시설을 정비할 7월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내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순천시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교통안전 표지와 노면표시 등 345곳의 교통안전시설을 정비 완료했고, 이면도로의 교통안전시설 999곳도 정비하고 있다. 순천시는 교통사고 70%가 도심지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어 안전속도 5030정책으로 교통사고 발생률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 고흥 녹동~ 제주 성산 '선라이즈 제주호' 첫 취항

내일 취항식...여름철 성수기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고흥군 녹동항과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을 잇는 여객선 '선라이즈 제주호(Sunrise Jeju)'가 오는 16일 취항한다. '선라이즈 제주'호는 신규항로인 고흥 녹동항~제주 성산포항 노선에 운항 할 예정이며 지난 2018년 해양수산부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로 한일고속에 인도된 '실버클라우드' 및 '골드스텔라'에 이어 발주된 선박이다.

'선라이즈 제주'호는 1만 5000톤급 카페리 선박으로 약 630여명의 여객 및 승용차, 트럭, 활어차 등을 동시에 170대 적재하여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이다. 따라서 카페리 운항의 특성을 잘 살린 Driver 휴게실, 수면용 의자석, 다양한 객실 연출로 세심하면서도 고급적인 인테리어로 구성되어있다. '선라이즈 제주'호의 운영선

사인 ㈜에이치해운은 오는 16일 15시 고흥 녹동항에서 취항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취항식에는 송귀군 고흥군수 및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또 신규항로 개설에 따라 안전운항을 최우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편의성 증진을 물론 이겨나와, 선명인 '선라이즈 제주'호와 같이 성산포 일출을 맞이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여행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벌써부터 여름철 성수기 여행객들에게 한껏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에이치해운은 현재 인천~백령도 쾌속선을 운항하고 있으며, 후포 울릉도와 부산 대마도를 운항하는 ㈜대아고속훼리의 관계사이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광양시, 모바일 걷기앱  
워크온 7월 챌린지 운영

광양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바일 걷기앱 워크온 7월 챌린지'를 11일부터 운영한다. 7월 챌린지는 20일간 15만 보 이상을 걸은 선착순 400명에게 ▲모바일문화상품권(5천 원권) 250개 ▲기능성 마스크팩(10매) 50개 ▲스트레칭 세라밴드 50개 ▲미니구급함 50개를 지급할 예정이다. 참여 방법은 모바일 앱 워크온 설치 후 광양시 공식 커뮤니티(소그룹 읍면동 선택)에 가입하고 광양시 챌린지에서 '시작하기'를 누른 후 휴대폰을 가지고 걸으면 된다. 단, 걸음수는 1일 최대 1만 5천 보로 제한된다. 현재 워크온 광양시 공식 커뮤니티 가입자 수는 2,500명을 넘어섰으며, 7월 중에 3,000명 가입 달성을 목표로 '친구초대 이벤트'를 실시한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웅 기자

## 여수시 민간 체육시설 '특별 합동 점검'

여수시·도시관리공단·여수경찰서 12개 점검반 편성

여수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근 실내 민간체육시설업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 강화에 나섰다. 시는 광주,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춤바, 스피닝, 에어로빅 등 정부에서 고위험 시설로 지정한 격렬한 실내 집단 운동시설 20개소와 운동시설 이용자 간 접촉빈도가 높은 실내운동 시설 등 총 88개소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시 체육지원과, 도시관리공단, 여수경찰서 직원 총 33명을 12개 조 합동점검반으로 편성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 종료 시까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격렬한 실내 집단 운동시설인 춤바, 스피닝, 에어로빅 등의 고위험시설은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방역 지침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민간체육 시설관리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전자출입명부 이용실태 및 마스크 착용 여부도 집중점검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 해주시는 민간체육시설 사업주 분들에게 감사하며 "모두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방역지침 준수사항을 잘 지켜 코로나19 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의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체육시설에 대해 전액 시비로 50만 원씩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신청 방법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웅 기자

# 장성진품한우식육식당

전남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1437-56 TEL : 061)394-0092